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했다.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었다. 마태복음 27:46에 보면, 사도 마태는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일이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을 말한다. 그것이 대리적 속죄의 의미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우리 대신 대속물이 죽든지 하는 것이 필요했다. 우리를 대신할 만한 가치 있는 대속물이 필요했다. 구약의 짐승 제물,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는 상징물에 불과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참으로 담당할 만하지 못했다. 구약의 짐승 제물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2.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죽음이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했다. 신명기 28:15-22,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궁구[혼란]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우리도 죄인이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 갈라디아서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죄의 형벌은 죽음이며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모든 죄인들이 그러하며 우리도 그러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혹은 구속)하셨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사심을 뜻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이며 그의 속죄사역의 의미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사도행전 20:28, “너희[장로들]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조심하라].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신성(神性)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택자들을 사셨다. 교회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바된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영혼들을 보화와 같이 여겨주셨다. 그는 독생자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19-20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롬 1:6).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으나, 그가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와 영생을 주셨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18-19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救贖)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 이시며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이며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